

30대 과장 아래 40대 계장... '만년차장'도 속출

연공서열 역사 속으로... '성과주의' 뿌리 내리는 은행

뱅크&뱅크 스토리

③ 능력따라 승진

과거 연공서열 따라 '입행 순 승진' 現 능력·실적 따른 승진사례 많아 효율성 떨어지는 '승진고시' 폐지

연공서열, 상명하복 등 경직된 조직의 대명사였던 은행의 승진체계가 변하고 있다.

영업과 실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은행의 특성 때문에 승진 평가에서 성과주의가 뿌리를 내리는 중이다. 과거에는 연공서열에 따라 입행 순으로 승진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하지만 수 년 전부터 능력과 실적에 따라 승진하는 사례가 자리를 잡았다. 30대 과장 아래에서 40대 계장이 일하는 일은 다반사다. 발탁인사로 30대 부장, 40대 임원이 탄생하는 것도 통상적인 일이 됐다.

A은행의 경우 20여년 간 치뤘던 승진고시를 폐지하고 실적평가 방식을 통한 승진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요 시중은행의 승진체계가 바뀌고 있다. 호봉이나 입행 순서에 따라 승진했던 시절은 이미 옛날이 됐다.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instagram

올해 마지막으로 치뤄지는 승진고사에서 과장급 임용자리를 탈환하기 위해 은행원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 성과주의 승진...머리급은 만년 차장

실제로 B은행 정기인사에선 40대 지점장(부서장)의 인사폭이 넓어지고 있다.

B은행에서 40대 지점장 발탁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5년 40%(100여명 중 40여명) 수준이었던 40대 지점장은 지난해 70%(130여명 중 90명)로 급증했고 올해 정기 인사에서는 85%까지 늘었다.

성과에 따른 과격 인사로 조직 내 저성 과자나 승진 누락자가 느끼는 압박도 적지 않다. 지점 통폐합 등 은행권 오프라인 채널 축소로 주요 은행은 인사적체에 직면하고 있다. 명예퇴직이 늘어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90년대에 대규모 행원 채용으로 입행한 직원의 경우 차장까지는 무난히 진급했지만 그 이상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

최근 은행권에서 인력 수요가 떨어지고 디지털 전환에 따른 모바일뱅크, 비대

면 채널이 강화되면서 '만년 차장'이 속출하고 있는 것. 지점 수가 감소하면서 지점장, 부지점장 등의 자리가 축소되고 있어서다.

은행원 K씨는 "이젠 40대 후반까지 지점장을 달지 못하면 만년 차장 또는 부지점장 꼬리표가 달린다"고 했다.

다른 은행원 P씨는 "한 은행은 70% 이상이 인사 적체에 갇혀 있다. 또 30대 과장 아래 40~50대 계장들이 있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 마지막 승진고시, 휴가는 독서실로

"하루 3시간 자면서 6개월동안 2살, 4살 아이 키우면서 공부했습니다."

지난해 C은행의 한 행원이 자체 승진 시험 문제에 의문이 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한 글이다. C은행의 직원들은 승진고시 한 문제에 일회일비를 반복하고 있다. 주간에는 근무, 밤에는 시험공부를 하며 승진고시 합격에 매진하고 있는 것.

지난 1996년부터 치러지고 있는 C은행의 승진고시중 임용고시는 높은 수준의 문제 난이도와 치열한 경쟁률로 악명이 높다. 응시과목이 많은 데다 상대평가로

승진자가 결정된다. 매년 응시자 약 1500명 중 합격자는 100명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C은행의 승진시험도 올해를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직원들이 일상 업무보다는 시험공부에 치중하면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노·사 간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승진고시를 준비하는 행원들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다. C은행에서 임용고시 합격은 행 내에서 우수인재로 인정받는 통과리레이기 때문이다. 또 3~5년차(5급 기준) 대리급 직원을 대상으로 치뤄지는 임용고시에 합격하면 1년 내 과장으로 고승진할 수 있다.

L씨는 "현재 공부하고 있는 책만 12권이 넘는다. 휴가에도 독서실을 등록해 공부했다"며 "기존의 합격자들이 말하기를 10번 정독하면 불고, 9번 정독하면 떨어진다"고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승진고시를 합격한 D씨는 "시험이 4개월 넘게 남았지만 올해 초부터 시험을 준비하는 동료들이 많다. 아무래도 마지막 시험이다보니 열기가 올라간 것 같다"고 했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metroseoul.co.kr

금융권 하반기 2700명 채용... 키워드는 '공정·투명성'

도전! 내가 뱅커다

■ '금융시장 A매치' 개막

한국은행 60명·금융원 63명 등 금융공기관 채용규모 360명 선

국민은행 600명·하나은행 500명 등 5대 시중은행 신입 2000명 뽑아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 9개 금융공공기관과 5개 시중은행이 올 하반기 중 약 2700명 가량을 채용한다. 이번 공채의 키워드는 '공정성'과 '투명성'으로 압축된다. 블라인드 방식과 필기전형이 지원자의 당락을 가를 전망이다. '채용비리'로 흉역을 치른 은행권은 모범규준을 채용과정에 적극 반영해 필기전형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으로 개선했다. 또 금융권에서 정보기술(IT)·디지털 부문을 신설하는 등 이공계 출신까지 채용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으로 꼽힌다.

◆ 금융기관·은행권 2700여명 채용

한국은행과 KDB산업은행 등 9개 금융공공기관은 이달 말 신입사원 채용 서류 접수를 시작한다. 오는 10월 20일을 'A매치 데이'로 지정해 동시에 필기시험을 진행한다. 'A매치 데이'는 금융권에서도 높은 임금과 복지 수준 등으로 취업 준비생의 꿈의 직장으로 불리는 금융기관의 필기시험일을 말한다.

하반기 금융공공기관의 채용규모는 680명 선이다. 기관별로는 한국은행 60명, 금융감독원 63명, 주택금융공사 85명, 자산관리공사(캠코) 80명, 산업은행 65명, 수출입은행 30명, 기업은행 210명 등이다.

5대 시중은행도 올 하반기에 2000여명에 달하는 신입 행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금융권 취업은 높은 연봉과 안정적인 고용으로 인기가.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다. 올 하반기 금융권 공채가 시작됐다. 메트로신문은 금융권의 채용규모와 일정, 채용전형 등을 살펴보고 각 금융공공기관과 은행의 인사담당자, 최근 입사자를 직접 만나 금융권 채용의 최신 이슈를 소개한다. <편집자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600명, 신한은행 200명 이상, 하나은행 최대 500명, 농협은행이 150명 이상을 하반기에 채용한다. 우리은행은 현재 전형 중인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200명)을 포함해 하반기 510명을 신규로 뽑는다. 현재 260명을 채용 중이며 나머지 250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 '공정성'에 방점

지난해 금융권 채용비리 여파로 금융권의 채용 전형은 상당 부분 바뀌었다. 금융공기업은 공공기관 운영지침을 준수하고, 시중은행은 은행권 채용 모범규준을 모집 요강에 반영했다.

특히 금융기관의 전형절차는 서류·필기·면접 등 3단계로 나뉜다. 특히 채용과정에서 블라인드 면접과 내부감사 등 시스템 강화를 통해 공정성을 제고했다.

은행 역시 채용 모범규준에 따라 필기전형을 진행한다. 필기전형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으로 바뀌 객관성을

했다. 그 대신 자기소개서 항목은 늘려 개인 역량을 검증하기로 했다. 지난해 채용 비리로 곤욕을 치른 금감원은 채용 과정에 대한 내부감사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 면접 점수를 현장에서 전산으로 입력해 외부의 압력을 차단할 계획이다. 주금공과 캠코는 서류전형을 폐지하고, 불성실 작성자 등을 제외한 모든 지원자에게 필기전형 기회를 부여한다. 다른 금융공기업도 지원자에게 필기전형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필기전형은 지원자의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공기업 대부분은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기본으로 하고 별도의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추가했다. 필기시험에는 경제, 경영, 금융 상식이 출제되며 객관식, 단답식 뿐만 아니라 논술 문제도 나온다.

은행 역시 채용 모범규준에 따라 필기전형을 진행한다. 필기전형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으로 바뀌 객관성을

<금융 공공기관 채용공고와 일정>

기관	채용인원	서류접수	필기전형
한국은행	60명	8월 28일 ~9월6일	10월 20일
금융감독원	63명	8월 28일 ~9월4일	10월 20일
산업은행	65명	8월 29일 ~9월12일	10월 20일
예금보험공사	30명 내외	9월 초	10월 20일
한국자산관리공사	80명 내외	9월 중	10월 20일
기업은행	210명	8월 31일 ~9월14일	10월 20일

<5대 시중은행 채용공고와 일정>

은행	채용인원	채용공고
국민은행	600명(일반400명)	계재
신한은행	200명(예상)	미정
농협은행	5급 공채 150명	9월 말
우리은행	510명(일반 250명)	9월중 250명 추가공고
하나은행	500명 예상	9월중

높일 것으로 보인다. 채용비리를 불러 일으켰던 임직원 추천제는 폐지됐다. 성별이나 연령, 출신학교 등에 따른 차별도 금지된다. 특히 국민은행의 경우 2차면접 중 온라인 면접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해 보다 객관적으로 지원자를 판단할 계획이다.

◆ 이공계 채용 증가

취업전문 기업 인크루트가 조사한 올 하반기 산업별 채용 전망에서 금융·보험업종은 지난해보다 채용 계획 규모가 6.5% 늘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디지털 금융, 보안, AI 관련 채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금감원은 올해 정보기술(IT) 관련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총 채용 예정 인원 63명 중 25%를 IT·통계학·금융공학 부문에서 채용할 예정이다. 산은도 올해 들어 '빅데이터'와 '생명공학' 전문가를 채용하는 점이 특징이다.

/유재희 기자

'회계부정 의혹' 경총 노동부, 지도점검 착수

전 정부 용역사업 수익 유용 등 조사

정부용역 관련 회계부정 등의 의혹이 제기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지도점검에 착수했다. 노동부가 경총 길들이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4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3일 경총 사무실에 약 10여명의 직원을 보내 수익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시작해 7일까지 총 5일간 지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7월 초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김영배 전 상임부회장 시절 경총이 일부 사업 수익을 유용해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회계 처리의 불투명 의혹도 불거진 바 있다. 이번 지도점검도 이 같은 의혹에 대한 확인 차원으로 보인다.

경총에서는 노동부가 경총 길들이기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1일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적폐 청산'을 강조한데 따른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 경총에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이미 보냈다면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경총은 노동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관리·감독 대상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해마다 비영리법인의 20% 정도에 대한 지도점검을 해 통상 1개 기관이 5년에 한 번 이상은 지도점검을 받는다.

경총의 경우 2010년 7월 이후 지도점검을 받지 않아 이번에 다른 6개 기관과 함께 지도점검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이 노동부 설명이다.

경총 역시 이번 지도점검이 지난 정부 시절 정부용역사업 수행 과정에서 용역대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노동부가 감사를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면서 이번 지도점검에 대해 특별한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